



위생면에서 본 탈의실 설계

- 홍 보 부 -

양돈가들로부터 최근 자주 듣게 되는 문제점에 탈의실과 양돈장에 들어갈 때의 시설설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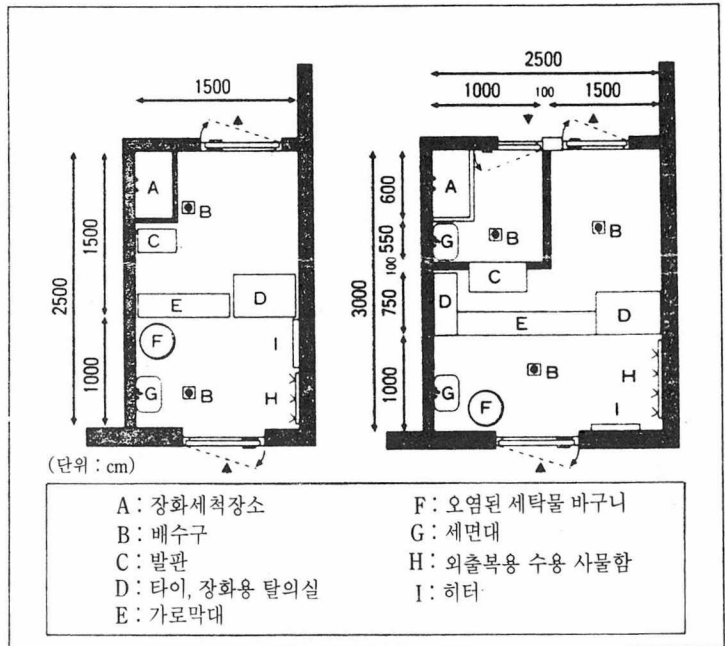
인간은 농장에서는 위생상 위험한 존재이다. 종업원이든, 방문객이든간에 피부나 머리카락, 의복 등을 통해 새로운 감염원을 농장에 들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위생관리상

철칙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양돈장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고, 입구에서는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의 구별을 확실히 한다.

〈그림 1〉은 세면장·탈의실의 일례로서 네덜란드의 국립

“
탈의실의 설계상 필수조건중 하나는 오염구역과 청정 구역을 확실히 분리하여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다. 입구는 문을 하나로 하고, 열쇠를 채우도록 한다.
”



〈그림 1〉네덜란드 양돈장의 위생관리 시설

위생소가 설계한 것이다. 양쪽 모두 기존 건물의 한 구석에 설치하는 형태로서 전부 새로 다시 짓는 것보다는 싼 값에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1992년 현재 네덜란드의 건축비는 1,500~2,100달러로, 새로 독립된 건물을 짓는 경우에 드는 비용 3,500~4,900달러에 비하면 싼 편이다. 보다 고가의 건물로서는 이미 만들어진 내장품을 전부 갖춘 건물이 몇몇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5,400~7,500달러이다.

탈의실의 설계상 필수조건중 하나는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을 확실히 분리하여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다. 입구는 문을 하나로 하고, 열쇠를 채우도록 한다. 문 바깥쪽에는 방문객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내부에 들어올 때는 벨을 눌러 주십시오”라고 주의문을 붙여 놓는다.

방에 들어서면 그곳은 오염구역이다. 그곳에는 장외용 의복을 걸어둘 수 있는 옷걸이, 수도, 비누, 소독용기 등이 있다. 또한 방문객을 위해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자물쇠가 달린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농장의 사무실로 통하는 창을 열고 그곳에서 귀중품을 넣어두어 보관하는 곳도 있다.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의 경계에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바닥 형태를 달리 해서 방문객에게 구역 구별을 확실하게 인식케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구별하는 장애물로 목재 가로막대를 설치하여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것을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오염구역내에 탈의실이 있어 농장용 장화나 타이 등(특히 중요한 것은 모자)을 보관하고 있다. 방문자가 가로막대를 지나가려면 이들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 준비가 끝나고 가로막대를 넘어 청정구역에 들어가면 장화를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발판이 있다. 여기에서 장화를 세척, 소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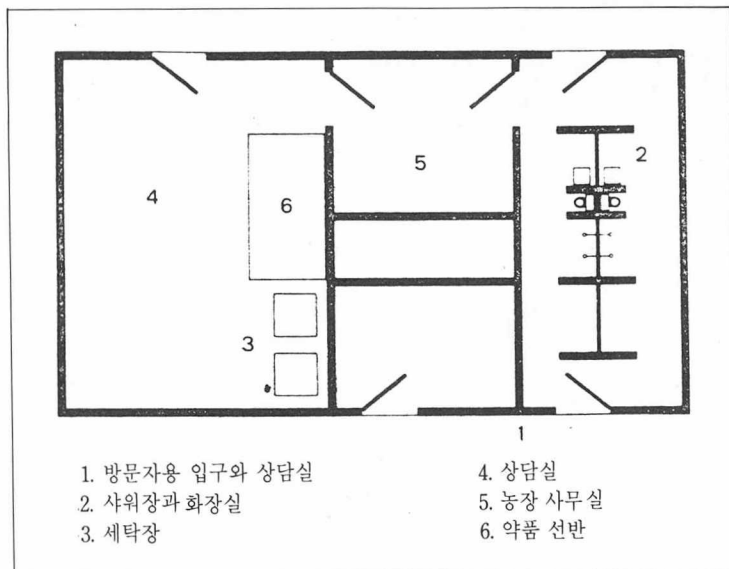
방문자가 돈사에서 돌아오면 청정구역에서 농장용 장화를

벗는다. 타이는 오염구역의 세탁물용 바구니안에 벗어놓는다.

샤워시설의 포인트

최근에는 양돈장의 탈의실에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샤워는 청정구역과 오염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샤워실의 입구와 출구는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따라서 샤워실 출구에는 수건과 갈아입을 의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확실히 샤워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한번 설치해두면 양돈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일을 마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샤워를 설치하려면 두 개 이상 만들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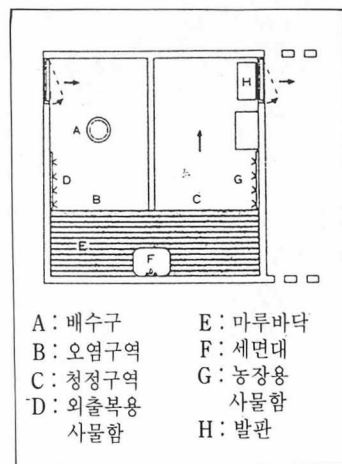
〈그림 2〉사무실과 탈의실을 조합시킨 예

한다.

〈그림 2〉는 양돈컨설턴트인 데이빗 호리머씨가 고안한 것으로 사무실과 탈의실을 조합시킨 설계 예이다. 이 시설에서는 자재 운반이나 양돈장 주인과 방문자간의 상담 등을 양돈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종업원들은 양돈장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의

복을 갈아입어야 한다. 화장실이나 세면대도 양돈장쪽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림 3〉은 또다른 형태의 설계 예로서, 샤워실을 세면대로 대응하고 있다. 네델란드 방식을 응용하여 세면대 밑에는 목재 틈마루 바닥을 설치하여 세척구역에 들어간 방문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배려했다.



〈그림 3〉네델란드식 탈의실

끝으로 부언해 두고 싶은 것은, 농장내에서 입는 의복은 청정구역내의 사물함 등에 넣어 두도록 한다. 또한 출구의 문 앞에는 발판을 설치하여 방문자가 돈사에 발을 들여 놓기 전에 장화를 소독하도록 한다.

그밖에도 발판에 장화세척기를 부착하거나 바닥에 스폰지등을 깔아두면 소독약을 절약할 수 있다.〈Pig International지 '93.2월호에서〉

